

오르페우스의 슬픈 사랑

글 정윤서
그림 손선아 정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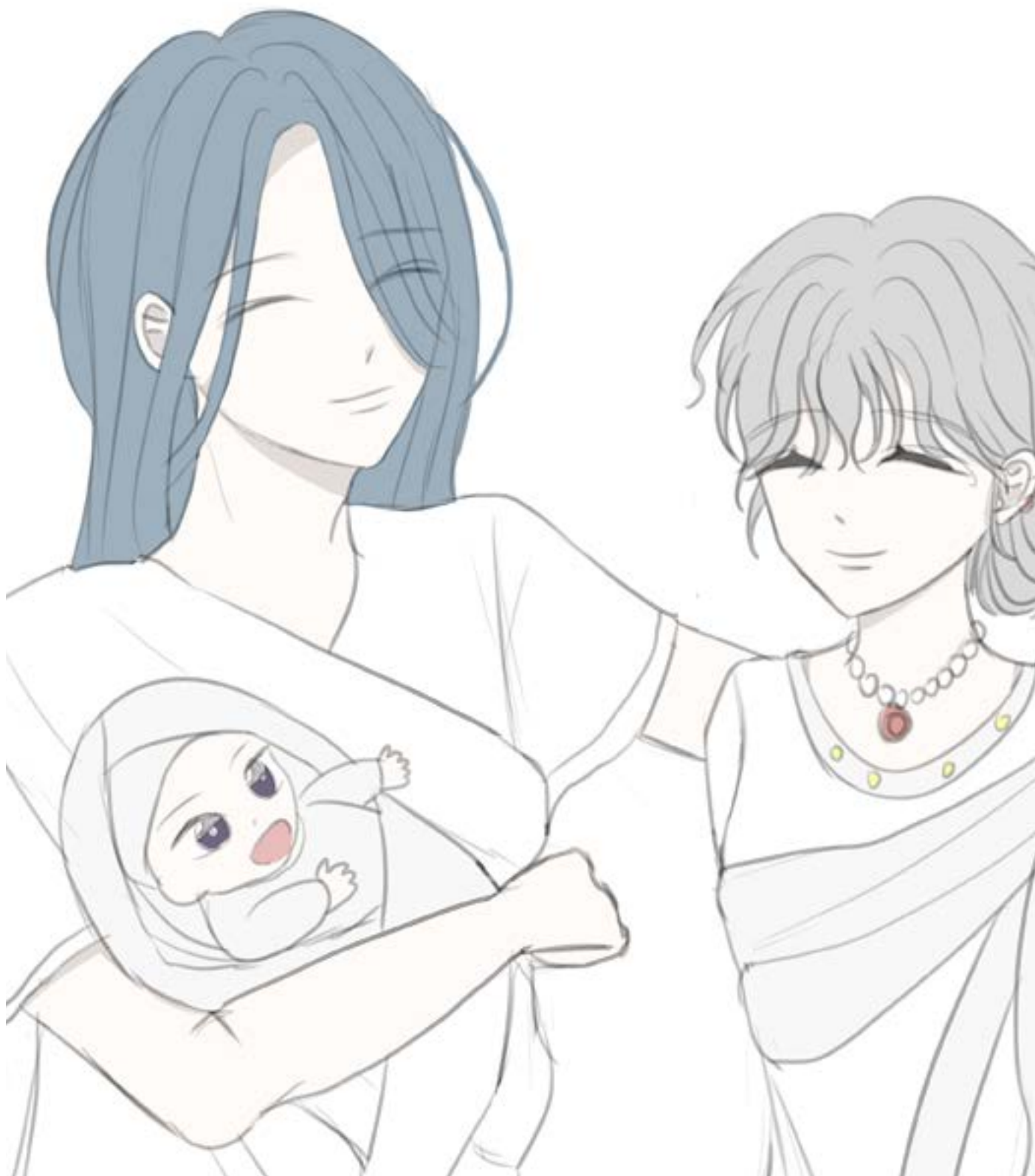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시인이자 음악가로 부인 에우리디케와의 슬픈 사랑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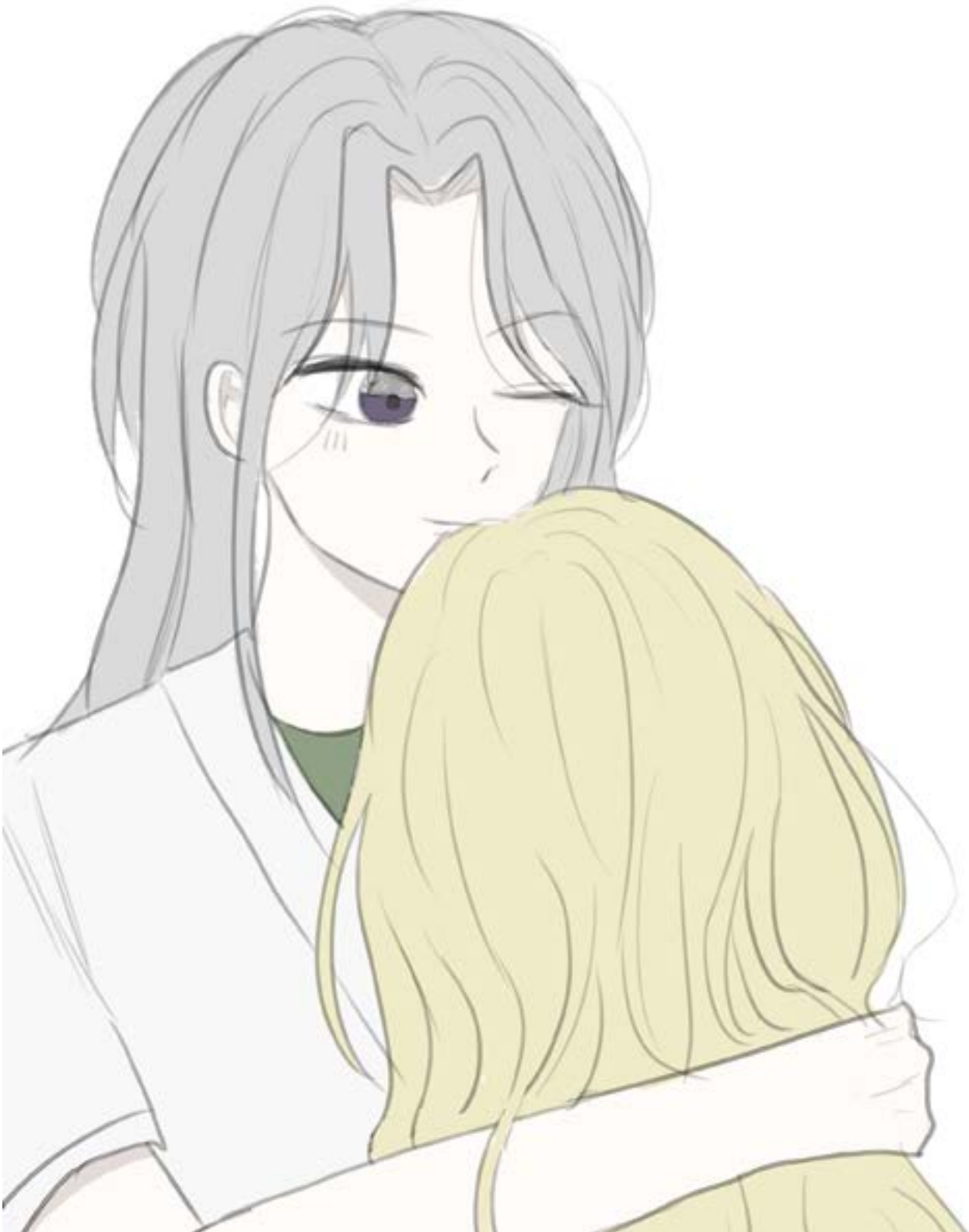
아, 감동적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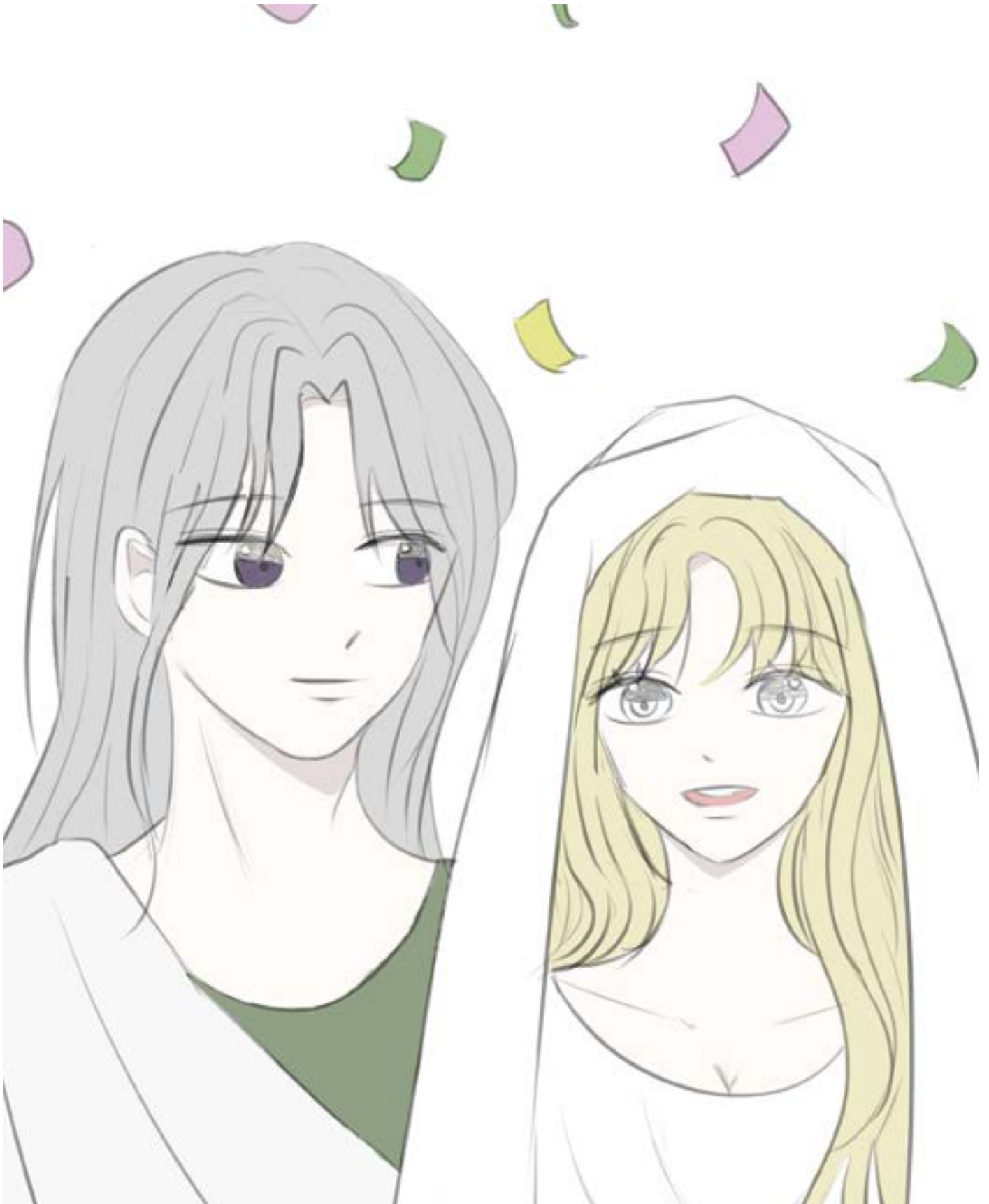
오르페우스는 강의 신 오이아그로스와 칼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아버지’로 감미로운 목소리와 리라의 연주 솜씨가 신과 인간은 물론 사나운 동물마저 암전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리라를 질 연주해 바다의 요정 세이렌들의 유혹하는 노랫소리를 리라 소리로 밀어 내 대원들을 구하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데케가 결혼하였을 때, 이를 축하해 주도록 히메나이오스라는 혼인의 남신도 초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히메나이오스는 참석은 했으나 아무런 길조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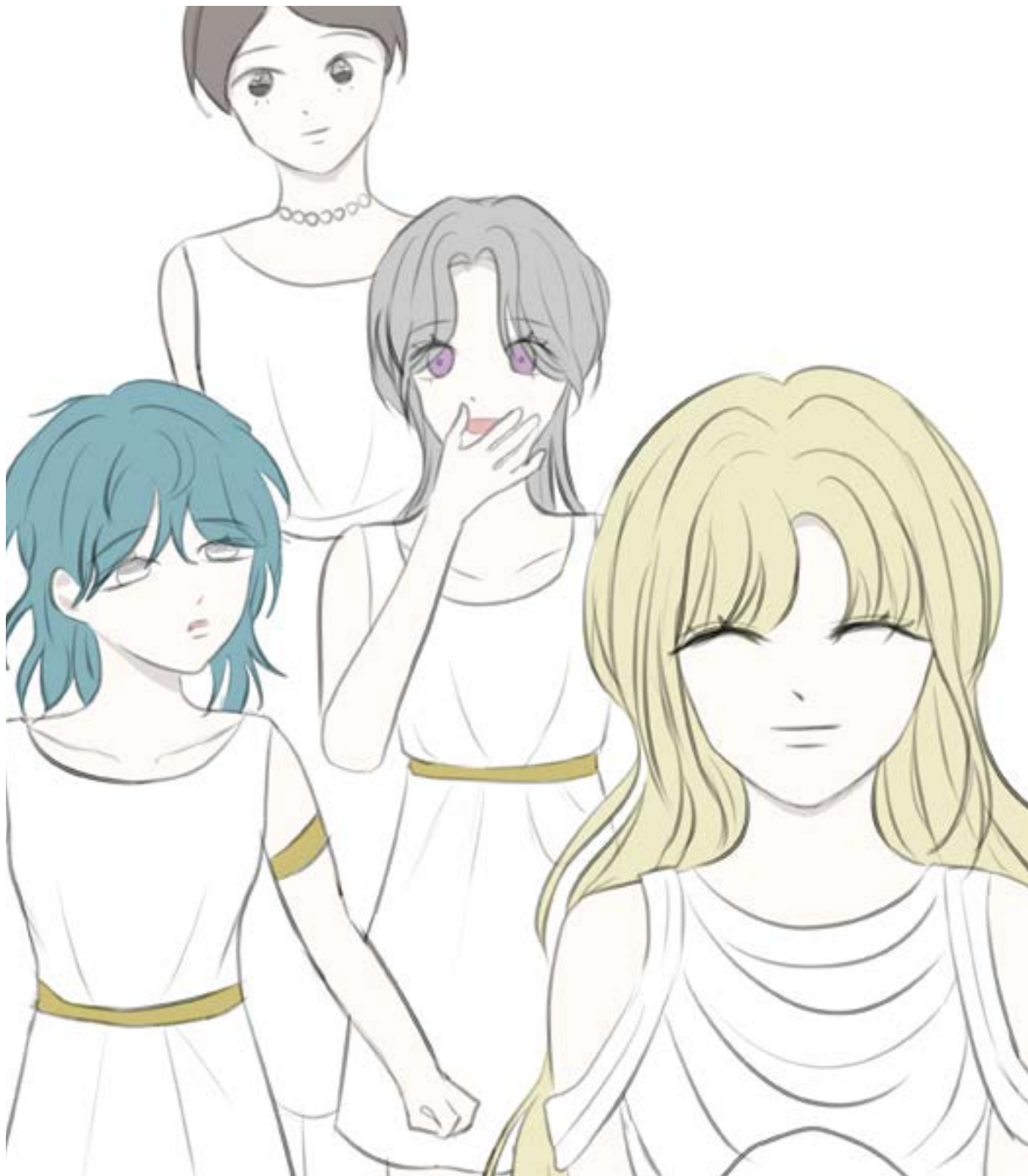


그의 햇불까지도 연기만 나서, 참석한 이들의 눈에 눈물만 나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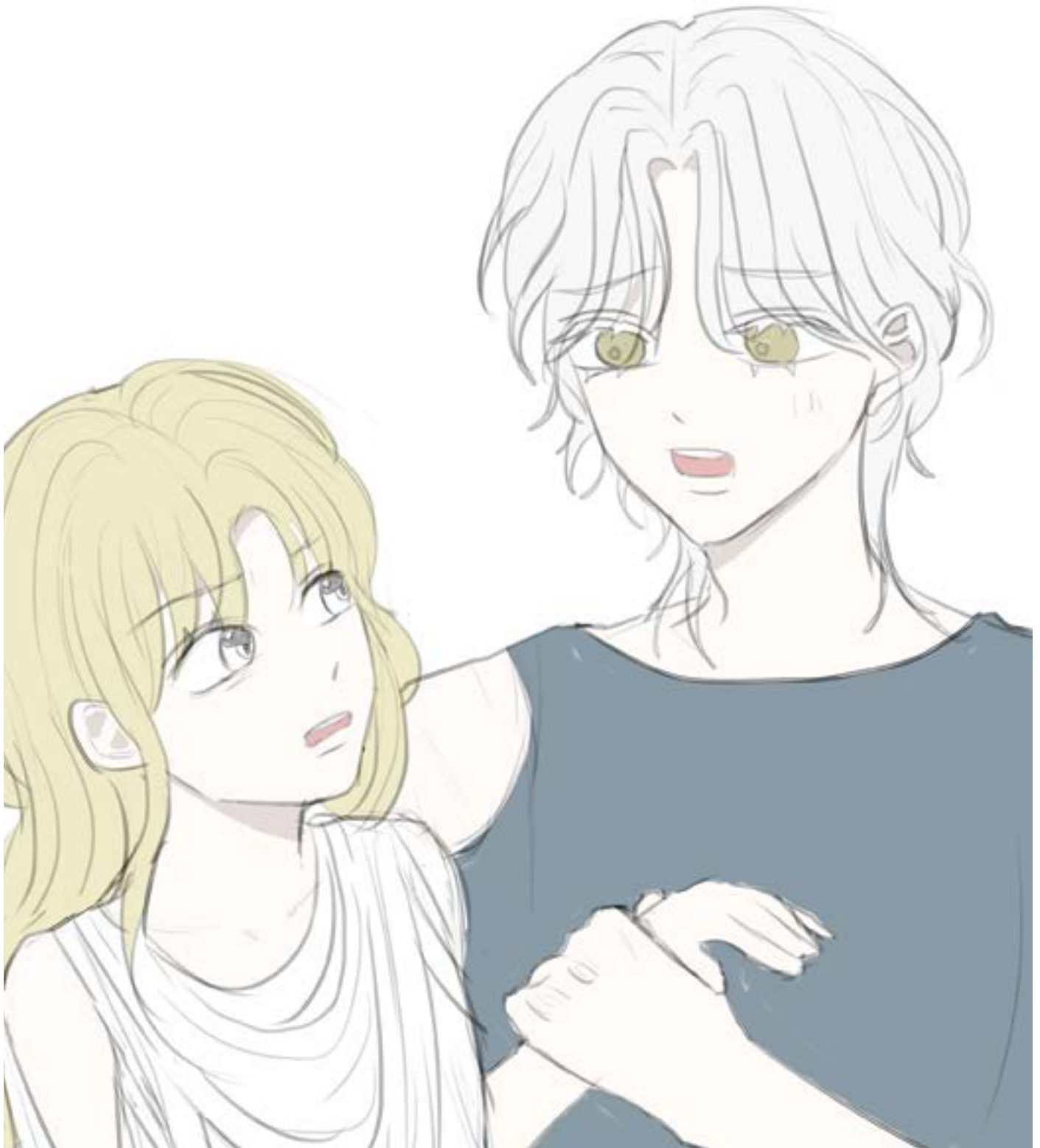
이와 같은 전조에 의해서인지 에우리디케는 결혼 후 얼마 가지 않아, 그녀의 동무인 님프(들, 언덕, 동굴, 하천, 샘, 수목 등에 있는 여자 정령들, 요정)들과 거닐고 있을 때 아리스타이오스라는 양치기 눈에 띄었습니다.

호호호



아리스타이오스는 그녀에게 반했고 그녀의 사랑을 얻고자
추근거렸습니다.

저리 가세요!



겁먹은 에우리디케는 도망치다 그만 풀 속에 있는 뱀에게 발을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 오르페우스...!



죽은 에우리디케를 찾아 지옥의 왕 하데스를 만나러 간 오르페우스,
그는 음악으로 신들을 감동시키고 자신의 슬픈 감정을 표현한 대가
로 사랑하는 아내의 부활을 선물 받습니다.

오, 에우리디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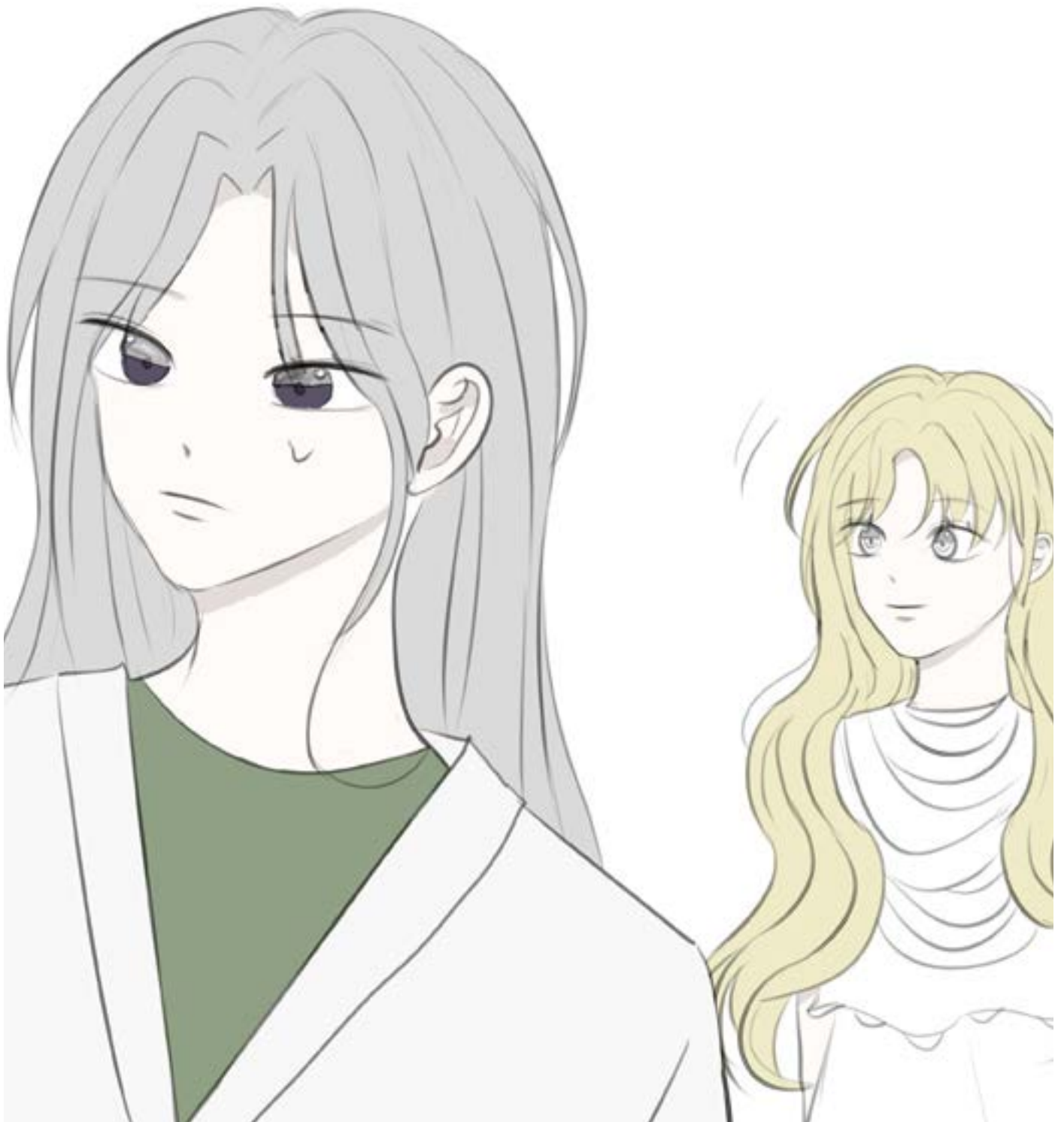
하데스는 아내를 돌려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

오르페우스, 너의 아내를 데리고 가라.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와 너의 아내가 완전히 지상으로 올라가기 전까진, 절대로 아내를 뒤돌아보면 안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의 음울한 울음소리가 가득한 동굴을 빠져나오는 그들, 지옥의 왕은 온갖 소음을 지어내 오르페우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는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되뇌고 또 되뇌지만 결국 출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뒤를 돌아보고 밀었죠...

에우리디케는 질 따라오고 있나?



결국 에우리디케는 지하 세계로 되끌려갔습니다.

안돼! 에우리디케!

앗! 오르페우스!



아내의 두 번째 죽음으로 오르페우스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그녀의 뒤를 따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는 다시는 지하 세계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식음을 전폐하고 이레 동안이나 강변에 앉아있었습니다. 그가 양식으로 삼은 것은 슬픔과 눈물뿐이었죠.

아... 에우리디케... 그때 내가 뒤돌아보지 않았더라면...



